

남성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김 지 현[†]

서울여자대학교

최 희 철

단국대학교

이 연구는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중년 남성의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모델, 경쟁모델 1, 경쟁모델 2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 가설모델과 경쟁모델 1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그러나 가설모델과 경쟁모델 1의 χ^2 차이 값의 검증에서 두 모델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도구성과 우울 간의 직접경로가 삭제된 가설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면서 더 간명하므로 최종적으로 가설모델이 선택되었다. 도구성은 우울에 대한 의미 있는 직접효과를 보이지 못하였고, 자기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효과도 함께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고,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을 통합하여 남성의 심리적 건강을 살피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추후연구와 남성 상담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남성 성역할, 도구성, 성역할 갈등, 자기존중감, 우울, 중년 남성

* 이 논문은 2007학년도 서울여자대학교 교내학술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았다.

† 교신저자 : 김지현, 서울여자대학교 교육심리학과,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26번지
Tel : 011-9132-5871, E-mail : mongsanga@hanmail.net

성역할은 한 사회 문화 안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대되는 행동을 말한다(O'Neil, 1981). 1970년대의 여성 운동과 1980년대의 일부 남성 연구자들은 여성 및 남성 각각의 성역할 사회화가 각각에게 비합리적인 제한을 가한다고 제안하였다(O'Neil, Helms, Gable, David, Wrightsman, 1986; Sharpe, Heppner, & Dixon, 1995). 양성성 모델을 주장한 Bem(1974)은 생물학적 성에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역할만을 획득한 사람에 비해, 생물학적 성 뿐 아니라 그 반대 성에게 바람직하다고 기대되는 성역할 모두를 획득한 개인이 심리적으로 더 건강하다고 제안하였다. Bem 또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하는 성역할만을 획득할 경우 그 사람의 기능을 제한한다고 본 것이다(Kilmartin, 2007). 논리적으로 남성적 특성과 여성적 특성 모두를 통합한 사람은 폭 넓은 대처 전략을 가지게 되므로 성에 일치하는 특성만을 획득한 사람보다 더 잘 적응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Kilmartin, 2007).

성역할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이같은 가정과 모순된 결과를 보였다. 양성성 모델에 기초한 한 연구들은 남성 성역할이 높은 집단과 양성의 성역할이 모두 높은 집단 간에 심리적 건강에서 일관성 있는 유의한 차이를 찾지 못하였다. 다수의 연구는 남성 성역할과 긍정적 심리적 건강 변인(예, 자존감, 삶의 만족) 간에 일관성 있게 정적 상관이 있고, 여성 성역할은 유의한 관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예,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 2005; Burnett, Anderson, & Heppner, 1995; Whitley, 1984). 한편, 남성 성역할은 부정적인 심리적 건강 변인과는 일관된 관계를 충분히 보이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주류 소비는 남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논리적으로 음주가 남성 성역할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성역할은 음주소비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비행과도 일관성 있는 관계가 없었다(Macreary, Newcomb, & Sadsva, 1999; Pleck, 1995). Whitley(1984)의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들이 남성 성역할과 우울 간에 의미 있는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남성 성역할과 긍정적인 심리적 건강 변인 간의 관계보다 안정적이지 않았고, 여성 성역할은 우울과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 성역할이 부정적 심리적 건강 변인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연구자들은 Bem Sex Role Inventory(Bem, 1974)의 남성성 척도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즉, 남성성 척도가 자기효능감 또는 주장성 등을 포함하는 도구성(instrumentality)과 같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만을 측정하고, 부정적 측면을 측정(예, 성역할 갈등 척도; O'Neil et al, 1986)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pence, 1991; Sharpe, Heppner, & Dixon, 1995; Tokar, Fischer, Schaub, & Moradi, 2000). 즉, 남성 성역할과 심리적 건강의 관계를 폭 넓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남성 성역할의 두 측면 모두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여성 성역할이 긍정적(예, 자존중감) 및 부정적 심리적 건강 변인(예, 우울) 모두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일부 연구자는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심리적 건강 변인이 개인내적 변인(예, 자존중감, 우울)으로 한정된 것을 지적하고, 공감과 같은 여성 성역할의 측면이 작동할 수 있는 대인간 심리적 건강 변인(예, 결혼만족)과 관계를 탐색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그들은 남성의 여성 성역

할이 본인 및 아내의 결혼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남성 성역할과 자기존중감, 우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므로, 다수의 연구에서 이들 변인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은 여성 성역할 변인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1980년대에, 일군의 남성 연구자들은 남성의 폭력, 우울, 낮은 자기존중감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에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성역할 긴장 이론과(Pleck, 1995), 성역할 갈등 이론(O'Neil, 1981)이 대표적이다. 이들을 기초로 한 연구들은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학습을 통하여 사회화된 성역할이 남성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리적인 상태인 남성 성역할 갈등(예: 성공 · 권력 · 경쟁의 추구,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평가하였다(Gender Role Conflict Scale: 이하 GRCS; O'Neil, Helms, Gable, David, Wrightsman, 1986). GRCS 척도를 이용한 연구들은 성역할 갈등이 상담심리 연구와 상담실제에서 중요한 심리적 건강 변인들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즉,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은 낮고(예, Sharpe & Heppner, 1991), 우울은 높았다(예, Good & Mintz, 1990).

국외에서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통합하여 연구하고 있는 경향(e.g., Sharpe, Heppner, & Dixon, 1995)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양성성 모델(Bem, 1974)을 바탕으로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예, 정진경, 1990), 부정적인 측면은 일부 연구자에 의해서만 다루어졌다(예,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국내에서도 남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성 성역

할의 긍정적인 측면(도구성)과 부정적인 측면(성역할 갈등)을 구별하면서 이들이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제한을 가하는지를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지현과 최희철(200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구성이(김영희, 1988)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고, 성역할 갈등(김지현, 황매향, 유정이, 2003)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으며, 자기존중감이 도구성과 우울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성역할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심리적 건강과 서로 다른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였다.

남성 성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결과가 다른 연령(예, 중년 남성)의 남성에게 일반화가 가능한지 확인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성역할이 학습되고 경험되는 방식이 복잡하고 특이하기 때문이다(O'Neil, Good & Holmes, 1995). 예를 들어, 대부분 미혼 남자 대학생은 점진적으로 원가족과 분리 독립하여 학교생활에 집중하고, 성공과 권력을 향한 노력으로 졸업과 취업에 대비하며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한다. 하지만 이는 가족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보다 정상적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다.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입지를 공고화하고 승진과 같이(Sharf, 2002) 성공을 이루는데 집중한다. 동시에 중년 남성은 가족으로부터 가족여가생활과 자녀양육에 참여하라는 기대를 받는다. 그러나 중년 남성은 조직 내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휴식시간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일에 매달리다 일과 가족 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는 대학생이 중년 남성보다 성공 · 권력 · 경

쟁의 추구에서 점수가 높고, 일과 가족 간의 갈등에서 점수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발달시기에 따라 남성들이 서로 다른 성역할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Cournoyer & Mahalik, 1995; Theodore & Lloyd, 2000). 따라서 남성 성역할과 관련하여, 한 연령에서 얻어진 연구 결과를 다른 연령에 적용하려면 새로운 대상에 대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인본주의 이론에 기초하여 성역할 긴장 이론을 제안한 Pleck(1995)은 내면화된 부정적 측면의 남성 성역할이 남성의 심리적 건강에 어떻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첫째, 사회가 남성에게 부여하는 어떤 역할은 소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 역할을 성취하기 어려우며, 그것에 부합하려고 노력할 경우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요한 타인들은 남성이 성역할에 부합할 때만 존중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차별을 하고 낙인찍는다. 이는 건강한 성격 발달에 중요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경험하는 것을 방해하고, 남성이 자신의 어떤 측면을 수용하지 못하게 한다(Kilmartin, 2007; Rogers, 1961). 이때 남성은 자기존중감이 낮아지는 등의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성취 준거로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Pleck의 이론은 이상적 자기("Who I should be")와 현실적 자기("who I am") 사이의 괴리가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Kilmartin, 2007). 이는 현실적으로 성취되기 어려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야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등의 이상적인 역기능적 믿음이 결과적으로 좌절과 실패를 초래하고 우울을 유발한다는 Beck의 주장(Pervin & John, 2001)과 다르지 않다.

둘째, 남성들이 성역할 기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더라도, 성공적인 수행 그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남성에게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역할들 중 일부는 남성 자신과 타인에게 원래부터 부정적인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남성 성역할 그 자체가 역기능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남성들이 지나치게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을 가로막게 될 것이다. 정서 표현을 여성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남성은 부정적인 정서의 출구를 찾지 못할 수 있고, 결국 억압된 감정들은 우울한 감정을 야기할 가능성을 높게 한다(Good & Mintz, 1990). 특히 이런 남성들은 남성 성역할 정체성에 위협이 되는 여성적 정서를 경험할 때 많은 방어(특히 신경증적 방어와 미성숙한 방어)들을 작동시켜, 남성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반동형성을 통해 진짜 감정과 반대되는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감정 표출을 위하여 미숙한 감정처리를 사용하고, 자신에게 위협적인 정서들을 다른 사람에게 전이시키기 위하여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도 지적되고 있다(김태련, 김정휘 역, 2002). O'Neil 등(1986)이 개발한 GRCS 척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들은 남성 성역할 갈등이 자신과 타인에게 심리적 부적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Pleck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예, 김지현, 황

육경, 최희철, 2005; Good & Mintz, 199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els, 1996).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연구들은 도구성과 남성 성역할 갈등이 자기존중감 및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받아들여지는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이 높다는 것은 남성 개인이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작동하는 특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자기 및 타인으로부터 수용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높아진 자기존중감을 통해 우울은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측면의 남성 성역할 갈등은 많은 남성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므로, 많은 남성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때 남성은 자기 및 타인으로부터 낙인찍히거나 조건적 수용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초가 된다. 이렇게 낮아진 자기존중감은 다시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Roberts, Gotlib, & Kassel, 1996). 요약하면 도구성은 자기존중감을 통해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고, 반대로 남성 성역할 갈등은 자기존중감을 통하여 우울을 야기할 수 있다.

다수의 연구자들은 개인의 특성(예, 완벽주의, 애착)과 심리적 건강 변인(예, 우울) 간의 매개변인으로서 자아존중감의 효과를 검증해 왔다(e.g., Rice, Ashby, & Slaney, 1998; Roberts, Gotlib, & Kassel, 1996; Wilkinson, 2004). 성역할과 관련해서 Lu와 Wu(1998)도 도구성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보여주었다. 도구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간접 효과만을 보였다. Hermann과 Betz(2004)의 연구에서도 도구성은 우울에 직접 효과를 갖지 못하고, 사회적 자아효능감

을 통한 간접 효과만을 보였다. 김지현과 최희철(2004)은 Lu와 Wu의 모델에 성역할 갈등을 통합하여,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이 각각 우울에 대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개모델(그림 2)을 가설화하였다. 그 결과 Lu와 Wu, Hermann과 Betz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도구성은 자기존중감을 통해 우울에 간접효과만을 가졌다.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효과와 자기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를 모두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지현과 최희철(2004)이 가설화한 매개모델(그림 2)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이 가정한 모형과 경쟁할 수 있는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들의 모델이 보다 효율적으로 자료에 적합한지 탐색하지는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이론을 통해 가정된 매개모델이 도구성과 우울 간의 직접경로를 포함한 모델(그림 1: 경쟁모델 1)과 비교했을 때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가정하지 않고 도구성, 성역할 갈등, 자기존중감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만을 포함한 모델(경쟁모델 2)과 가설모델이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김지현과 최희철(2004)의 연구 결과가 남자 대학생이 아닌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가설모델이 경쟁모델보다 자료에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 모델인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구성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 둘째, 성역할 갈등은 자기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간접효과를 가지고, 직접효과도 가질 것이다. 셋째 도구성과 성역할갈등은 유의한 관계가 없을 것이다. 남성의 도구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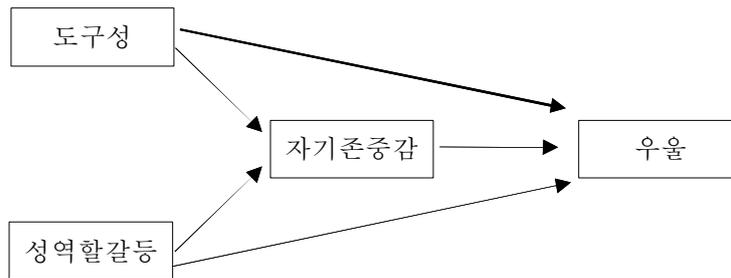


그림 1.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모두를 포함한 모델 (경쟁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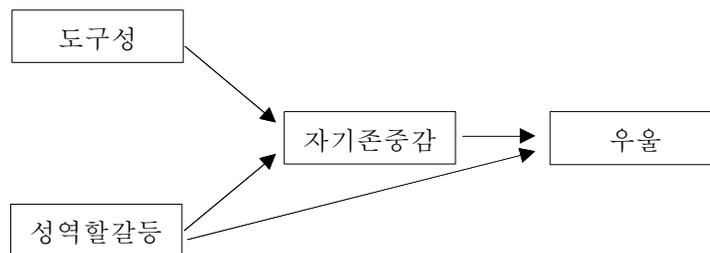


그림 2.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가설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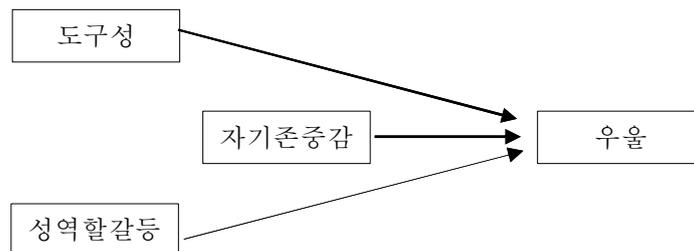


그림 3. 매개 경로를 삭제한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직접 관계 모델(경쟁모델 2)

성역할 갈등의 자기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남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내면화 하였을 경우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적응과 부적응에 관한 인식을 증가시키며, 이를 통해 여성에 대한 폭력 등 남성 성역할의 내면화가 부정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방 법

대상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년 남성 125명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학교, 기업, 교회 등을 통하여 임의표집 되었다. 이 중 한 척도에서의 반응을 완전히 누락한 1

부를 제외하고 12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중년 남성의 평균 연령은 42.75세(범위: 35-60, 표준편차: 5.33)였다. 연령별 분포는 40세 미만이 36명(29.0%), 50세 미만이 74명(59.7%), 60세 이하가 14명(11.3%)였다. 학력 분포는 대학원 졸업이 54명(45.3%), 고등학교 졸업이 41명(33.1%), 대학교 졸업이 13명(10.5%), 무학이 9명(7.3%), 중학교 졸업이 6명(4.8%), 초등학교 졸업이 1명(0.8%)이었다.

도구

한국 성역할 검사(Korea Sex Role Inventory; KSRI)

남성성역할의 긍정적 측면 즉, 도구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진경(1990)의 한국성역할검사(KSRI)의 남성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진경(1990)은 Bem(1974)의 성역할 검사 제작방식에 따라 남성성, 여성성, 긍정성 문항 각각 20개씩 총 60문항으로 한국 성역할 검사를 구성하였다. 남성성, 여성성 문항은 각 성별에게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문항들로, 긍정성 문항은 중성적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각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각각 .91, .84, .75였다. 이 척도는 Likert 식 7점 척도로 각 질문에 대해 자신의 성격을 얼마나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1(전혀 그렇지 않다)에서부터 7(매우 그렇다)까지에 선택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남성성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90 이었다.

한국어 성역할 갈등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O'Neil 등(1986)이 개발한 성역할 갈등척도(GRCS)는 3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인분석을 통해 성공·권력·경쟁(예,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감정 억제(예,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각별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기 힘들다”), 남성 간 애정 행동 억제(예, “다른 남자와 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다”), 일과 가족 관계 간의 갈등(예,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 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다”)이라는 4개의 하위요인을 추출 하였다. 이 척도는 Likert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으면 성역할 갈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8-.90으로 보고 되었다(Good et al., 1995). 이 연구에서는 K-GRCS(김지현, 황매향, 유정미, 2003)를 사용하였다. K-GRCS에서는 GRCS와 달리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은 각각 성공·권력·경쟁, 감정 및 남성간 애정행동 억제, 일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명명되었다. 김지현 등은 K-GRCS와 GRCS의 요인구조가 다르고, K-GRCS의 일부 문항이 각 하위요인에 대한 요인부하가 .30에 미치지 못함을 지적하며 하위요인의 해석은 유효하고 전체 척도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지현 등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K-GRCS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9이었다.

자기존중감 척도

자기존중감 척도는 개인의 자기존중 정도와 자아 승인 양상을 측정하는 검사이다. 이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진병재(1974)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긍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기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

다. 부정적 문항은 역채점한다. 이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4였다.

우울 척도

우울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CES-D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을 보다 용이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척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번역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통합하여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 4점 척도로 평정하게 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통합적 한국판 CES-D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5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11.5와 AMOS 5.0을 이용하였다.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상관분석을 하였다. 남성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

개변인으로서의 효과를 탐색하는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결 과

도구성, 성역할 갈등, 자기존중감, 우울의 상관 분석

도구성, 성역할 갈등, 자기존중감, 우울 변인 각각의 평균, 표준편차와 변인 간의 상관계수는 표 1과 같다. 첫째, 도구성은 성역할 갈등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고, 자기존중감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우울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성역할 갈등은 자기존중감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우울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자기존중감은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가설 모델, 경쟁모델 1, 경쟁모델 2의 비교 검증

모델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χ^2 검

표 1. 남성성, 성역할 갈등, 자존감과 우울의 상관관계

변인	1. 도구성	2.성역할 갈등	3. 자기존중감	4. 우울
1. 도구성		.06	.39**	-.32**
2. 성역할갈등			-.25**	.44**
3. 자기존중감				-.65**
4. 우울				
평균	95.51	136.26	29.61	15.10
표준편차	15.89	22.59	4.49	8.24

주. N = 124.

* $p < .05$. ** $p < .01$.

표 2. 적합도 지수와 모델비교

모델	χ^2	df	모델비교	$\Delta \chi^2$	NNFI	CFI	RMSEA
1. 경쟁모델1	.429	1			1.029	1.000	.000
2. 매개모델	4.187	2	1 대 2	3.758	.943	.981	.094
3. 경쟁모델2	32.082	3	2 대 3	27.895 **	.496	.748	.281

주. $N = 124$. NNFI = Non-normed Fit Index; CFI =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root-mean-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 $p < .05$. ** $p < .01$.

증을 하고, 세 가지 적합도 지수(NNFI, CFI, RMSEA)를 구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첫째, 경쟁 모델 1(그림 4)에 대한 적합도 지수는($\chi^2(1, 124) = .429, p = .512$, NNFI = 1.029, CFI = 1.000, RMSEA = .000)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가설 모델(그림 5)의 적합도 지수는($\chi^2(2, 124) = 4.187, p = .123$, NNFI = .943, CFI = .981,

RMSEA = .094) 가설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경쟁 모델 2(그림 6)의 적합도 지수는($\chi^2(4, 124) = 32.082, p = .000$, NNFI = .496, CFI = .748, RMSEA = .281), 모델이 자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홍세희, 2001). 이 결과들은 경쟁 모델 1과 가설모델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가설모델이 경쟁모델 1에 포함되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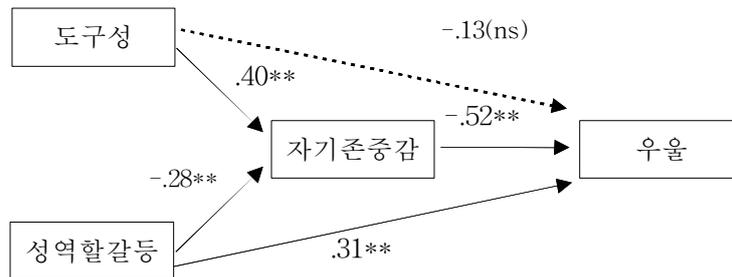


그림 4. 직접경로와 간접경로 모두를 포함한 모델 (경쟁 모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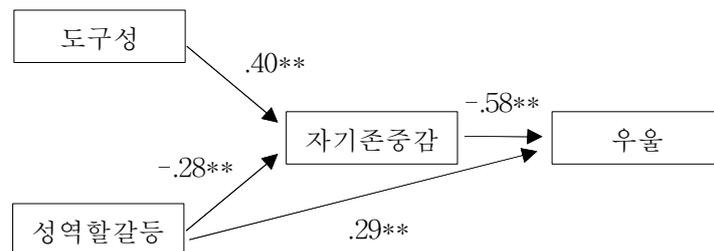


그림 5.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가설 모델

로(nested) 적합도와 간명성(parsimony)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어느 모델이 더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두 모델 간의 χ^2 차이 검증을 하였다(표 2). 그 결과 $\chi^2_{\text{difference}}$ (1, N =174) = 3.758, $p > .05$ 로 유의하지 않아, 보다 간명한 가설모델의 적합성이 경쟁 모델 1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모델 1에서 도구성의 우울로의 직접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 역시 경쟁모델보다는 가설모델이 자료에 더 적합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모델을 바탕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림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설 모델의 직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구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았다($\beta = .40, p < .01$). 성

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낮았다($\beta = -.28, p < .01$). 자기존중감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았다($\beta = -.58, p < .01$).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은 높았다($\beta = .29, p < .01$). 가설 모델의 간접효과와 관련한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구성과 우울 간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하여 완전 매개되었다(간접효과의 $\beta = -.23, p < .01$). 즉 도구성이 높을수록 우울은 낮았다. 성역할 갈등과 우울 간의 관계는 자기존중감에 의하여 부분 매개되었다(간접효과의 $\beta = .16, p < .01$).

논 의

이 연구는 중년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 및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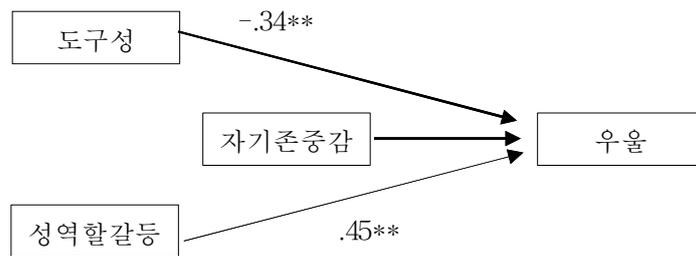


그림 6. 매개 경로를 삭제한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직접 관계 모델(경쟁모델 2)

표 3.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유의도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도구성 -->		우울	.00	-
도구성	자기존중감 -->	우울	-	.40 × -.58 = -.23**
성역할 갈등 -->		우울	.29**	-
성역할 갈등 -->	자기존중감 -->	우울	-	-.28 × -.58 = .16**

주. N = 124.

* $p < .05$. ** $p < .01$.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 가지의 결과를 얻었다. 우선, 이 연구는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이 서로 구별되는 구인이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반복 확인하였다. 둘째, 도구성은 우울에 대하여 직접효과를 갖지 못하고 자기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와 자기존중감을 통한 간접효과 모두를 보였다. 이 결과들은 선행연구들(김지현, 최희철, 2004; Lu & Wu, 1998)과 이론들을 통해 유추된 가설과 일치하는 것이다.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이 서로 의미 있는 상관이 없다는 결과는 이 두 구인이 남성의 성역할과 관계된 서로 다른 차원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harpe & Heppner, 1991). 또한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은 자기존중감과 우울에 대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였다. 이 결과는 성역할과 관련된 구인들이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이므로 성역할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기존의 긍정적 성역할만을 고려한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김지현, 2003; 김지현, 최희철, 2004; Pleck, 1995)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높은 도구성이 높은 자존감, 낮은 우울 등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으며, 메타분석 연구도 이를 지지하였다(Sharpe & Heppner, 1991; Whitley, 1984). Lu와 Wu(1998), 김지현과 최희철(2004)은 도구성이 자기존중감을 잘 예측하고, 다시 자기존중감은 우울을 잘 예측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도구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뜻이다. 이 연구는 자기존중감이 남성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는 Lu와 Wu, 김지현과 최희철의 연구 결과가 한국의 중년 남성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 남성의 자기존중감이 낮을 때 도구성을 강화함으로써 혹은 도구성이 낮을 때 다른 수단을 통해 자기존중감이 커지면 우울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왔다(김지현, 최희철, 2004; Sharpe & Heppner, 1991; Zamarripa, Wampold, & Gregory, 2003). 또한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은 낮았다. 김지현과 최희철은(2004)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바가 있다. 그 결과, 자기존중감이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도 반복되었다. 이는 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자기존중감을 잘 예측할 수 있으며, 자기존중감이 우울을 잘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성역할 갈등이 높아도 자기존중감이 낮지 않다면 우울로 바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역할 갈등이 우울에 대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자기존중감이 높아도 성역할 갈등이 크면 우울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수 있음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첫째, 이 연구는 도구성이 우울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그 효과는 간접적임을 발견하였다. 둘째,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직접적으로 우울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자기존중감은 도구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서 의미 있는 매개변인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 즉 도구성과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의 우울에 대한 관계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첫째, 높은 도구성이 우울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상담자가 대학생이든 중년이든 남성 내담자를 상담할 경우 바람직한 도구성(예, 운동을 통한 건강 증진)은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 연구는 높은 성역할 갈등은 우울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바람직하지 못한 성역할 갈등을 유발하는 신념 등(예, 여성을 상사로 두는 것은 될 수 없으면 피해야 한다)은 인지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 어느 정도 자신의 위치가 정해지고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때 현실적인 자기를 고려하지 않고, 성공해야만 한다는 이상적 자기에만 집착할 경우 좌절과 패배감으로 인하여 우울에 이를 수 있으므로 성공의 개념을 인지적으로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 때 남성이 자신의 좌절감과 패배감 같은 정서를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알코올에 의존하여 표출하려고 할 경우 신체적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우울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감정 자각 및 정서 표현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리교육적인 개입을 통하여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다양하게 인식하고, 이를 적절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조절할 수 있게 도움을 줄 필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남성의 성역할 갈등 요인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를 통해 우울 등의 부정적 감정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면, 남성이 부정적 감정의 부적절한 표출 통로로서 여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셋째, 자기존중감이 도구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도구성은 낮고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 상담관계 내에서 이상적인 남성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내담자 자신의 강점을 찾아 자기존중감이 상승할 경우 우울이 경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표집은 특정 지역에서 임의 표집 되었고, 표집의 크기가 작다는 면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반복연구를 통하여 그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남성 성역할, 성역할 갈등, 자기존중감, 우울 간의 동시적인 관계만을 살폈다. 따라서 구조방정식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확고한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다.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 단기 혹은 장기적인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이 연구는 제한적인 경험적 연구들과 이론의 바탕 위에 가설이 세워졌으므로 이 연구에서 설명하고자 시도한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심리적 건강 변인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설명할 수 있는 다차원적 접근의 남성 성역할 이론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도구성이 일관성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심리적 건강과 관련된 변인들, 예를 들어 물질의존성, 폭력성 등의 변인들을 연구에 포함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을

성역할 갈등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추후연구에서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이 연구는 종속변인으로 부정적 심리적 건강 변인인 우울만을 포함하였는데, 추후연구에서는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이 남성의 삶의 만족과 같은 긍정적 심리적 건강변인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희 (1988). 한국형 성역할검사 개발 연구. *아세아 여성 연구*, 27, 153-182,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 여성문제 연구소.
- 김지현, 최희철 (2004). 남성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004년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13-23.
- 김지현, 황매향, 유정미 (2003). 한국어 성역할 갈등 척도(Korean Gender Role Conflict Scale: K-GRCS) 타당화 연구. *아시아교육 연구*, 4, 25-41.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김태련, 김정희 역 (2002). 남성의 폭력성에 관하여.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 윤진, 최정훈, 김영미 (1989).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스트레스와의 관계(I): 남성 스트레스 척도 개발과 관련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연차학술발표대회 초록*, 12-19.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1), 59-76.
- 전병제 (1974). 자아 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 82-92.
- 최희철, 김병석, 김지현 (2005). 남자 대학생의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 *상담학 연구*, 6(1), 61-73.
- 홍세희 (2001). 임상심리학 이론의 경험적 검증을 위한 최신 연구방법론: 구조 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매개모형과 잠재평균 모형의 분석. 2001년도 한국임상심리학회 워크샵 교재, 한국임상심리학회.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Hermann, K. R., & Betz, N. E. (2004). Path models of the relationships of instrumentality and expressiveness to social self-efficacy, shyness, and depressive symptoms. *Sex Roles*, 51(2), 55-66.
- Burnett, J. W., Anderson, W. P., & Heppner, P. P. (1995). Gender roles and self-esteem: A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3, 323-326.
- Cournoyer, R. J., & Mahalik, J. R. (1995). Cross-sectional study of gender role conflict examining college-aged and middle age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 11-19.
- Good, G. E., Robertson, J. M., Fitzgerald, L. F., Stevens, M., & Bartles, K. M. (1996). The relation between masculine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ale university

- counseling center client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44-49.
- Good, G., & Mintz, L. B. (1990).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 Kilmartin (2007). *The masculine self (3rd ed.)*. New York: Sloan Publishing.
- Lu, L., & Wu, H. (1998). Gender-role traits and depression: Self-esteem and control as mediators. *Counseling Psychology Quarterly*, 11, 95-107.
- McCreary, D. R., Newcomb, M. D., & Sadava, S. W. (1999). The male role, alcohol use, and alcohol problems: A structural modeling examination in adult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6(1), 109-124.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Ronald F. Levant & Williams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62-206). New York: Basic Books. pp. 163-206.
- O'Neil, J. M., Hemel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Pervin, L. A., & John, O. P. (2001).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Y.: John Wiley & Son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R.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11-32). New York: BasicBooks.
- Rice, K. G., Ashby, J. S., & Slaney, R. B. (1998).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304-314.
- Roberts, J. E., Gotlib, I. H., &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e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2), 310-320.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Miffli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arf, R. S. (2002).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Sharpe, M. J., & Heppner, P. P., & Dixon, W. A. (1995).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expressiveness, and well-being in adult men. *Sex Roles*, 33, 1-18.
- Spence, J. T. (1991). Do the BSRI and PAQ measure the same or different concept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5, 141-165.

- Theodore, H., & Lloyd, B. F. (2000). Age and gender role conflict: A cross-sectional study of Australian men. *Sex Roles, 42*(11/12), 1027-1041.
- Tokar, D. M., Fischer, A. R., Schaub, M., & Moradi, B. Masculine gender roles and counseling-related variables: Links with and mediation by persona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3), 380-393.
- Whitley, B. E.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 Zamarripa, M. X., Wampold, B. E., & Gregory, E. (2003). Male gender role conflict, depression, and anxiety: Clarification and generalizability to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33-338.
- 1 차원고접수 : 2007. 5. 10.
심사통과접수 : 2007. 6. 20.
최종원고접수 : 2007. 6. 24.

Self-Esteem as a Mediator Between Instrumentality,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Korean Middle-aged Men

JiHyeon Kim

Seoul Women's University

HeeCheol Choi

Dankook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self-esteem as a medi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rumentality,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124 Korean middle-aged men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hypothesized model fitted to materials. Results indicated that instrumentality was not directly influenced depression, but demonstrated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whereas gender role conflict demonstrated direct and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elf-esteem. These results were consistent with the literature.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to consider the positive aspects and negative aspects of male gender role when we need to understand and counsel middle-aged men. Both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ors are discussed.

Key words :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Self-esteem, Depression